

#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차례◆

1. 문학 속으로

(1) 시와 서정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1쪽 (35문제)

(2) 소설과 서사

봄.봄\_김유정-----11쪽 (47문제)

(3) 수필과 교술

이옥설\_이규보-----34쪽 (39문제)

(4) 시나리오와 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민규동-----46쪽 (46문제)

2. 말과 글의 힘

(1) 말과 글을 통한 소통

한국의 정체성\_탁석산-----68쪽 (34문제)

(2) 논증과 토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82쪽 (40문제)

3. 삶에서 책을 찾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_황지우-----100쪽 (20문제)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1) 음운 변동-----108쪽 (61문제)

한글 맞춤법-----124쪽 (65문제)

(2) 국어의 역사성-----141쪽 (61문제)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1) 점검하며 읽고 쓰기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_이주현-----157쪽 (32문제)

(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173쪽 (20문제)

▶정답-----182쪽

▶해설-----185쪽

(버전: 2020.03)

## 2-(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 ◆핵심 정리◆

<b>간제</b>	반대 신문식 토론
<b>제제</b>	변형 농산물의 재배
<b>주제</b>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의 필요성과 문제점
<b>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와 관련한 필수 쟁점을 설정한 후 찬반 주장을 주고받고 있다.</li> <li>•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개념 정의,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li> </ul>
<b>구성</b>	입론 - 교차 신문 - 반론 - 최종 변론

### •구성

**논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쟁점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찬성 측 제1토론자 입론  
반대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반대 측 제1토론자 입론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쟁점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찬성 측 제2토론자 입론  
반대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반대 측 제2토론자 입론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 반론 및 최종 변론

반대 측 제1토론자 반론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론  
반대 측 제2토론자 최종 변론  
찬성 측 제2토론자 최종 변론

### •토론의 쟁점

- **쟁점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b>주장</b>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b>근거</b>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기아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농산물의 적절하지 못한 분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생산물의 적절한 분배보다 경제적이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 **쟁점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b>주장</b>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b>근거</b>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여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모나크나비 애벌레의 예처럼 농약이나 살충제보다 더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박하고 있다.

- ⑤ 입론, 교차 신문이 끝나면 반론, 최종 변론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기초교과용 (사)**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토론의 논제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보기>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다.’와 같이 사실 논제란 말 그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제를 의미한다. 사실 논제는 시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로 나뉠 수 있으며 흔히 법정 공방에서 볼 수 있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논제도 사실 논제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처럼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가치 논제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와 같이 어떤 정책의 실행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주장하는 논제는 정책 논제라고 한다.

- ①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 ②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
- ③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 ④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
- ⑤ 출신 학교를 서열화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교과용 (사)**

3. 위 토론의 논제와 관련하여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개발 도상국에서 GM(유전자 조작) 작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처음 몬산토는 자사의 Bt(Bio technology) 면화가 병충해에 강해 결과적으로 더 적은 살충제를 쓰게 되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Bt 면화는 GM 작물의 한 종류로,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을 분비하도록 면화의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이다. 그러나 인도의 종자지킴이 네트워크 ‘나브다냐(Navdanya)’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동부권인 비다르바(Vidharbha)에서는 Bt 면화를 사용한 아래 살충제 사용이 오히려 13배 증가했다. 살충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었다.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브라질은 2008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충제를 사용해 왔다. GM 작물 재배로 살충제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

- ① 인류의 식량 부족의 원인이 잘못된 분배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다.
- ②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육류 소비의 감소를 주장하는 데 활용한다.
- ③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 토론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④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반대 측 토론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 활용한다.
- 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에 유익하므로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때 활용한다.

**기초교과용 (사)**

4. 위 토론을 보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대한 찬·반 주장과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찬성측 입장	주장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유/근거	㉠
반대측 입장	주장	식량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유/근거	식량 부족 문제는 분배 체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세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하다.

<조건>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근거를 쓸 것.
- 핵심 내용을 담아 한 문장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부터 들겠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는 교차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지요?

찬성 1 :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 2 :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찬성 1 : 그것은 수요·공급 등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든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

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셨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반대 1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실제로도 그랬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까요?

반대 1 : 아직까지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 토론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과열되어 예의에 어긋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 우리 측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 등을 점점 더 많이 뿌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산성화가 되었고, 공기는 더러워졌으며, 수질 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미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논의반향문(정답)**

**5. 토론자들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찬성1'은 입론에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내리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찬성1’은 교차신문에서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며 답변하고 있다.
- ③ ‘반대1’은 입론에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반대2’는 교차신문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토론을 이끌고 있다.
- ⑤ ‘찬성1’과 ‘반대1’은 입론에서 모두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이 경제적임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독립모형토론(성인)**

**6. 찬성 측의 주장을 필수 쟁점별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 현재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② 문제 :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 ③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④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유전자 변형 기술로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워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
- ⑤ 해결 방안에 따르는 이익 : 국가 간 식량 분배를 조절하여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독립모형토론(성인)**

**7. 위 토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몬산토’는 자신의 Bt(Bio technology) 면화가 병충해에 강해 결과적으로 더 적은 살충제를 쓰게 되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Bt 면화는 GM 작물의 한 종류로,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을 분비하도록 면화의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이다. 몬산토의 Bt 면화 종자는 ‘toxin Cry’라는 살충제 성분을 함유해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인도 정부는 전체 면화 생산지의 90%가 Bt 면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의 종자 지킴이 네트워크 ‘나브다냐’에 따르면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동부권인 비다르바에서는 Bt 면화를 사용한 이래 살충제 사용이 오히려 13배 증가했다. 이 살충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었다.

- ① 반대 측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반대 측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발생 국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찬성 측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 ㉠ )’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문부터 들겠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는 교차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지요?

찬성 1 :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 2 :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찬성 1 : 그것은 수요·공급 등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문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든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 ㉡ )

**■ 8. 빈 칸 ㉠에 들어갈 논제를 한 문장으로 쓰되 ‘~해야 한다’로 서술하시오.**

8. 빈 칸 ㉠에 들어갈 논제를 한 문장으로 쓰되 ‘~해야 한다’로 서술하시오.

**■ 9. 빈 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9. 빈 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②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식량 부족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③ 미래의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 ④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 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섭취한 뒤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입론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둔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교차 신문

찬성 1 :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셨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반대 1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실제로도 그랬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까요?

반대 1 : 아직까지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 토론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과열되어 예의에 어긋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회자는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
- ② 찬성 측의 입론에 따르면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 ③ 반대 측의 입론에서는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거나 찬성 측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④ 찬성 측의 입론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⑤ 논제와 관련한 필수 쟁점을 설정한 후 찬반 주장을 주고받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회자 :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 A )의 입론부터 들겠습니다.

( A )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 B )는 교차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찬성 2 : 우리 측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어보충문제(29)】**

12. 위 토론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농민들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 등을 점점 더 많이 뿌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산성화가 되었고, 공기는 더러워졌으며, 수질 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란 생물 자원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실제 옥수수와 같은 전분을 발효하여 생산한 바이오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미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회자 : 이제 반대 측 제 1 토론자가 교차신문을 할 차례입니다.

반대 1 : 농약을 처음 사용했을 때에도 미래에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농약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찬성 2 : 지금은 농약을 처음 사용할 때보다 과학 기술이 훨씬 발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과학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재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찬성 측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 측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란 그 안에서 여러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999년 미국의 ○○ 대학교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꽃가루를 먹은 모나크나비 애벌레의 치사율이 44퍼센트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옥수수는 해충에 내성을 가진 옥수수였는데, 엉뚱하게 해충뿐 아니라 모나크나비 애벌레까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모나크나비 애벌레에게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농약이나 살충제보다 더 무서운 환경 파괴범으로 보였을 겁니다.

흔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프랑켄푸드’라고 합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기괴한 조합으로 괴물을 만들어 내었듯이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려면 천문학적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듭니다. 그동안 인간의 손이 닿을 때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 환경을 망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 상·고·중·고 (시·행)**

13. 윗글의 A와 B에 들어갈 참가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A             | B           |
| ① 찬성 측 제1 토론자 | 반대 측 제1 토론자 |
| ② 찬성 측 제2 토론자 | 반대 측 제2 토론자 |
| ③ 반대 측 제1 토론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 |
| ④ 찬성 측 제1 토론자 | 반대 측 제2 토론자 |
| ⑤ 반대 측 제1 토론자 | 찬성 측 제2 토론자 |

**▶ 상·고·중·고 (시·행)**

14. (가)에 제시된 쟁점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 정의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상품의 질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이다.
- ② 문제의 심각성 : 현재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그 원인은 농산물 가격이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 ③ 해결 방안 :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④ 해결 방안에 따르는 비용 :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⑤ 해결 방안에 따르는 이익 :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면 식량 부족 문제뿐 아니라 식량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상·고·중·고 (시·행)**

15.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의 일반적인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자들에게 토론 규칙을 알려준다.
- ② 논제와 관련한 필수 쟁점을 설정하여 토론자들에게 안내한다.
- ③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 ④ 필요한 경우 질문과 요약 하여 토론 진행을 돕는다.
- ⑤ 토론의 흐름과 진행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환경농업논(사)**

**16.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측은 현재의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찬성 측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얻은 바이오에너지로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찬성 측은 좋은 환경이란 그 안에서 여러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④ 반대 측은 농약을 처음 도입했을 때 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환경 오염을 줄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기하는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화석 연료의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문부터 들겠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는 교차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지요?

찬성 1 :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 2 :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찬성 1 : 그것은 수요·공급 등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문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든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_\_\_\_\_ ① \_\_\_\_\_.

<중략>

반대 1 : 아직까지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 ②토론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과열되어 예의에 어긋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입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핵심 정리◆

자유시, 서정시  
 성격 : 감각적, 고백적, 희망적  
 주제 : 기다림  
 주제 : 기다림의 절실함과 안타까움  
 특징 : • 절실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나'에 대한 기다림을 형상화함.  
 •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재회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냄.

**이 시에 나타난 기다림의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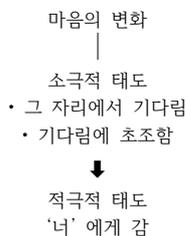
이 시에는 사랑하는 존재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너'이지만 화자는 '너'에 대한 기다림을 설렘과 행복하고 충만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찌보면 '너'를 만날 미래보다 현재의 기다림을 더 축복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나'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발자국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놀랄 만큼 '너'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또한 그것이 '너'가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가슴이 아리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너'에게로 갈 만큼 기다림은 절실하고 애잔하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기다림의 절실한 심정을 평범한 일상어를 통해 절묘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너에게로 가는 능동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1~12행)에서는 '너'를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끝내 오지 않는 '너'로 인해 절망하는 '나(시적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미리 가서 초조함과 설렘 속에서 '너'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너'는 끝내 오지 않고, 매번 '너'인 줄 알았다가 네가 아님을 확인하는 일은 나에게 '가슴 에리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뒷부분(12~22행)에서 '나'는 마침내 '너'에게 가기로 결심한다. '너'는 아주 멀리 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고 있음에도 아직 '나'에게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너'에게로 간다는 것은 결국 더욱 초조하고 절실한 기다림의 안타까운 순환 행위일 뿐이다. 왜냐 하면 '나' 쿵쿵거리는 발자국을 따라 단지 '너'에게 상상으로 다가갈 뿐이기 때문이다.



**○ 기다림의 대상 - '너'**

이 시에서 화자가 절실하게 기다리는 '너'는 누구일까? 그것은 13행에 드러난 대로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으며, 작가가 작품의 후기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 자유, 평화, 숨겨진 더운 사랑'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현재에는 부재(不在)하는 어떤 것들, 즉 소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를 '너'를 기다리는 행위는 실현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점에서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나'의 마음은 한없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찬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를 절망의 현재로부터 희망의 미래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보여 준 역설적인 깨달음처럼, 부재와 상실이라는 절망적 순간에서 오히려 희망을 건져 올리는 시라고 할 수 있다.

**○ 절망적 순간에서 찾은 희망**

소망에 대한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될 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초조와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확인하게 되는 역설적인 것이다. 즉, 오히려 너의 부재라는 절망적 순간에 나의 삶은 두근거리고 빛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3.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 (다산)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형의 문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소중한 존재를 기다리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③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 (다산)

2. 이 글을 읽고 깨달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적절하게 말한 사람은?

- ① 수현 : 이 시를 읽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
- ② 장호 : 이제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 ③ 은정 : 힘든 상황에서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
- ④ 현경 :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해.
- ⑤ 연정 : 나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주변의 풍경을 함께 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

#### ▶▶▶▶▶ (다산)

3. 이 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이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② '쿵쿵'은 발자국 소리와 화자의 가슴이 뛰는 소리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③ '바스락'은 화자의 감각이 청각에 집중된 상태를 보여 주는 말로 '너'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잘 드러내 준다.
- ④ '마침내'는 시의 전반부에 언급된 기다림의 결과가 뒤에 이어짐을 안내해 준다.
- ⑤ '아주 먼 데서'는 화자와 '너'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말로, '너'는 화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3. 너를 기다리는 동안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나) 기다려 본 사람은, 아니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아니다. 기다림이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라는 것을,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 아닌 그 기다림. 그 사이에 희망과 불안이 오가며 불안은 희망을 키우고 희망은 다시 불안을 자라게 한다. 그리하여 앉아서 기다려도 마음은 이미 문밖을 넘어 내가 오는 길목으로 마중을 나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 또한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절망 때문에 또 희망을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 하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초조하다. 기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의지다. 시인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는 게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우리는 드디어 만나게 된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일 수도 있고,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분만실 태아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식당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기다린다. 기다림이란 애타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자유와 평화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지칠 법도 하고 녹슬 법도 한데, 기어이 기다리고 기다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가.

기다리고 싶다. 휴대 전화 없이 마냥 기다려 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녀를, 희망을, 민주와 평화를 진득하니 기다려 보고픈 것이다. 그럼 행복할 것 같다. 어린 왕자처럼. 그것이 다시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할 것 같다.

#### 【국어보통문법 (224)】

#### 4.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함.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함.
- ③ (가)는 시적화자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남 (수동적, 소극적 태도 → 능동적, 적극적 태도)

- ④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착어를 바탕으로 기다림의 의미를 상세히 해설하고 확장함.
- ⑤ (가)는 서정 갈래로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나)는 비평문으로서 기다림은 불안과 절망, 초조함이기도 하며 그래서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함.

#### 【국어보통문법 (225)】

#### 5. (가) 작품의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유사한 작품이 아닌 것은?

- ①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 서경덕 -
- ②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다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하고 오노가 가는가 건년산  
 (山) 바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져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 님 넘비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존 디 마른 디 갈희지 말고 위령총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하고 꺾눈을 흘긔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갈가 벽긴 주주리 삼대 살드리로 날 소  
 겨거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행혀 낮이런들 남 우일 번하래라.  
 - 작자 미상 -
-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 ④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을 침묵을 휩싸고 둥  
 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 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  
 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 양방향독후교 (7.25)**

6. ㉠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기대감 → 초조감, 불안감 → 절망감
- ② 기대감 → 초조감, 불안감 → 간절함
- ③ 간절함 → 초조감, 불안감 → 절망감
- ④ 간절함 → 지루함 → 절망감
- ⑤ 기대감 → 지루함 → 간절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양방향독후교 (7.27)**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바라는 상황을 향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감정적 울림을 폭넓게 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양방향독후교 (7.27)**

8.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밑줄 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내면세계로 몰입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② ㉠은 외부로부터 화자에게 압박이 가해진 결과이다.
- ③ ㉠은 화자가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④ ㉠은 소극적이었던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환된 결과이다.
- ⑤ ㉠은 현실에서 좌절을 느낀 화자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계기이다.

**▶ 양방향독후교 (7.27)**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② ㉡에는 화자의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③ ㉢에서는 설의적 표현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에서 화자의 확신은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

**▶ 양방향독후교 (7.27)**

10.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신새벽 뒷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통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벼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 4-(1) 한글 맞춤법

### ㉑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제정 이유

- ① 개념: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 놓은 어문 규범
- ② 제정 이유: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함.

### ■ 한글 맞춤법의 종류와 내용

<b>총칙</b>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법 규정
<b>자모</b>	한글 자모(字母)의 수와 순서
<b>단어 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에 관한 것(단어의 발음법에 관한 규정)</li> <li>• 형태에 관한 것(단어의 표기법에 관한 규정)</li> </ul>
<b>띄어쓰기와 그 밖의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경우에 대한 띄어쓰기의 원칙</li> <li>• 한자어, 접미사 등 헛갈리기 쉬운 말들의 표기</li> </ul>

### ㉒ 제정 경리

<b>김제</b>	설명문	<b>성격</b>	객관적, 예시적
<b>제제</b>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		
<b>주제</b>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이해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필요성		
<b>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함.</li> <li>② 한글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대신에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li> </ul>		

###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1항)

<b>제1항</b>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표기 대상: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한 것’
- ② 원칙

<b>소리대로 적음.</b>	<b>어법에 맞도록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li> <li>• 표음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li> <li>• 표의주의, 형태주의</li> </ul>

### ■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2항)

<b>제2항</b>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기본 원칙: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씀.
  - ↳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 ② 예외: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씀.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 ↳ 조사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씀.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①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② 칼국수를 먹어야 하니 깍뚜기를 듬뿍 담아라.
- ③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④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⑤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 ㉣난뭔가진실한결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겁니다.

- ①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②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③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④ ㉣ : 난 뭔가 진실한 결 안 것 같습니다.
- ⑤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윤아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①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④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⑤ '윤아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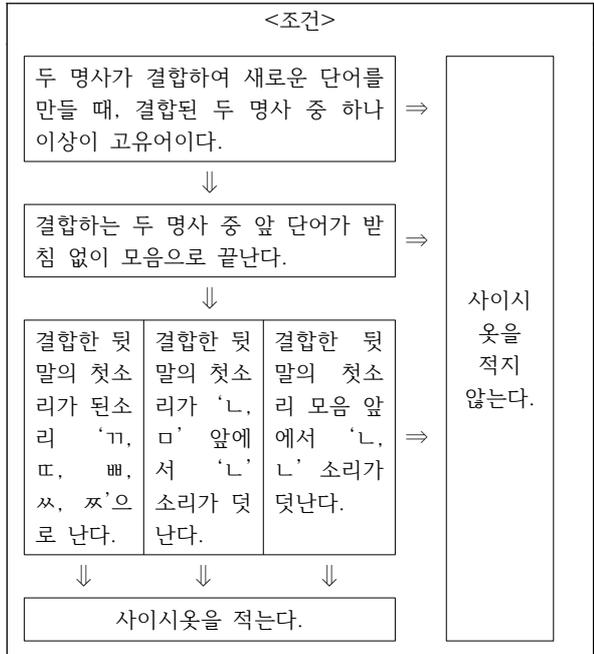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네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① 강철
- ② 어준
- ③ 아영
- ④ 순이
- ⑤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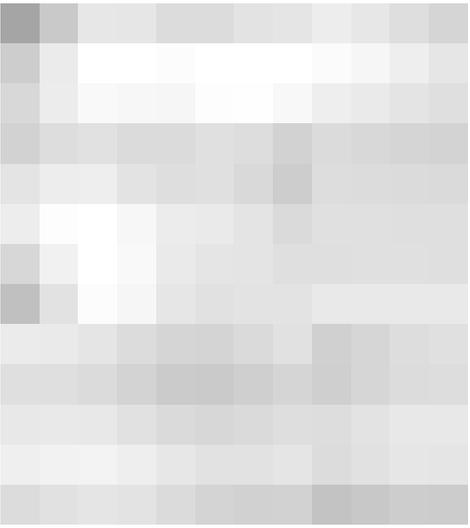
- ①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②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③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④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⑤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고등학교(사)**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과’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돼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비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되’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한국고등학교(사)**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햇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고등학교(사)**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다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싹싹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금 회전률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촛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4-(1)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규정	올바른 표기
① ㉠	(그럴 꺾×, 그럴 꺾○)
② ㉡	(따뜻히×, 따뜻이○)
③ ㉢	(오뚜기×, 오뚜이○)
④ ㉣	(찾아봘니×, 찾아봘니○)
⑤ ㉤	(공염불×, 공염불○)

**정답과 해설 (가)**

17.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을 (나)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연습하기

㉠ '솔'에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를 '소나무'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쓰러지다'를 '쓸어-'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집'에 접미사 '-옹'이 결합된 파생어를 '지붕'으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구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할 때 '구르미'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밭-'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을 항상 '밭'으로 고정시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女性'을 원래 음을 밝힌 '녀성'으로 적지 않고 '여성'으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정답과 해설 (가)**

18.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예 국수, 납작

제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예 똑딱똑딱, 눅눅하다

- ① ㉠을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가 소리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영동하다'가 아니라 '영똥하다'로 적는 것은 ㉠의 '몽땅'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난리법쩍'이 아니라 '난리법척'으로 적는 것은 ㉡의 '납작'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민밋하다'가 아니라 '밋밋하다'로 적는 것은 ㉢의 '눅눅하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씩뚝'이 아니라 '씩뚝'으로 적는 것은 ㉣의 규정을 따를 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정답과 해설 (가)**

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빛물, 등꽃길, 뒷일, 헛수, 깻잎, 꼭짓점, 아랫마을

<보기 2>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p> <p>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p>	→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예	→	
<p>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p>	→	
↓ 예	→	
<p>1.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ㄱ, ㄷ, ㅃ, ㅆ, ㅈ'으로 난다.</p>	→	
또는	→	
<p>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p>	→	
또는	→	
<p>3.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6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	
↓ 예	→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시옷을 적는다.</p> <p>1. 등꽃길, 꼭짓점</p> <p>2.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p>3.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	

4-(2) 국어의 역사성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언어는 변한다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국어도 변한다	『훈민정음』 서문과 그 현대어 풀이
	표기 측면의 국어 변화상
	음운 측면의 국어 변화상
	어휘 측면의 국어 변화상
	문법 측면의 국어 변화상

•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b>사회성</b>	언어의 뜻과 소리의 관계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성질
<b>역사성</b>	언어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성질

• 『훈민정음』 서문에 드러나는 한글의 한계 정신

<b>자주 정신</b>	우리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 통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문자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b>예민 정신</b>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겪고 있는 고충을 헤아리고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b>실용 정신</b>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쓰기에 편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실용적인 태도

• 『훈민정음』 서문을 통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b>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로 쓰기</li> <li>• 이어적기</li> <li>• 띄어쓰기 하지 않음.</li> <li>• 합용 병서를 활용한 어두 자음군 표기가 있었음. 예) .쁘들, .뿌데, .쌩크미나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쓰기</li> <li>• 끊어적기</li> <li>• 띄어쓰기를 함.</li> <li>• 초성에 서로 다른 복수의 자음을 표기하지 못함. 예) .뜻을, .쌘에, .따름이나라</li> </ul>
<b>음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방’ 등의 음운이 존재함.</li> <li>• 성조가 있었고 방점으로 이를 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방’ 등의 음운이 소실되고 없음.</li> <li>•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방점도 찍지 않게 됨.</li> </ul>
<b>어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국어에는 없는 단어가 존재함.</li> <li>• 현대 국어와는 뜻이 다른 단어가 있었음. 예) 어리다 : 어리석다, 어엿보다 : 불쌍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세 국어에는 있던 단어가 사라짐. 예) 스뚨디</li> <li>• 중세 국어와는 뜻이 달라진 단어들 있음. 예) 어리다 : 나이가 적다, 어엿보다 : ‘예쁘다’를 예</li> </ul>
<b>문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짐. 예) 爲왕-하야</li> <li>•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임. 예) 中동國-에달아</li> <li>• 주격 조사 ‘가’가 없었음. 예) .흙배(바+ㅣ 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음 조화가 많이 사라짐. 예) 위하여</li> <li>•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과’를 씀. 예) 중국과 달라</li> <li>•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됨. 예) 하는 바가</li> </ul>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御製訓民正音

㉠나라:말쓰미 ㉡中동國國에 달아 文문字字와로 서르 스  
 댓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姓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ㅁ·츄:내제 ·ㅂ·들 시러 퍼디 :물홀 ·노미 하  
 나라 ·내 ·아·를 ㉣爲왕·후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字를 ㅁ·고·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나겨 ·날로 ·뽀·메  
 便便安안한키 ㅎ·고·져 홀 ㅅ·르·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  
 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  
 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  
 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  
 다.

**기초문제(30%)**

1. 밑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  
 다.
- ②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  
 다.
- ③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  
 였다.
- ④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  
 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  
 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기초문제(30%)**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ㅅ’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②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  
 군.
- ④ ㉣의 ‘후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기초문제(30%)**

3. 밑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  
 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  
 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② ‘사뭇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휘 소멸의 예이다.
- ③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④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  
 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예의 예이다.
- ⑤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  
 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기초문제(30%)**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본 소리  
 두외느니라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그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  
 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란 ㉢울흔녀긔 브터 쓰라.

[현대어 풀이] ·와 -와 그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오른쪽에 붙여 쓰  
 라.

- |          |      |     |
|----------|------|-----|
| ㉠        | ㉡    | ㉢   |
| ① 文문字字   | 나라   | 퍼디  |
| ② 百백姓姓이  | ㅎ고져  | 니겨  |
| ③ ㅁ·고·노니 | 이런   | 달아  |
| ④ 히여     | ㅁ·츄내 | 시러  |
| ⑤ 수비     | 물홀   | 하니라 |

**기본교과(사)**

5.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음운을 각각 쓰시오.

<보기>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도 먼저 ㉡기본자를 만든 후, 이 기본자를 합성시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기본교과(사)**

6.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세국어 표기법을 쓰시오.

<보기>

• 말쌈미                      • 뜰  
• 뿌메                         • 쓰르미나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宗御製訓民正音

㉠나라:말쌈미 中東國에 ㉡달아 文文字宗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배 ·아·셔·도 무·츰·내·제 ㉤·뜰·들 사·러 파·디 :물·홍 ·노·미  
하·니·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宗·를 망·고·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한·키 하·고·져 홍 쓰르·미·나·라

**기본교과(사)**

7.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부사격 조사를 표기할 때 ‘ㅅ’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② ㉡ :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이어 적기하여 표기하였다.
- ③ ㉢ : 한자어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였다.
- ④ ㉣ : 주격 조사를 쓸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였다.
- ⑤ ㉤ : 초성을 쓸 때 합용 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써서 어두 자음군을 표기하였다.

**기본교과(사)**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세국어와 현대 국의 차이점을 탐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탐구자료 ㉠-㉤에 들어갈 적절한 예시만을 짝지은 것은?

<보기>		
탐구 영역	탐구 자료	탐구 내용
음운의 측면	㉠	가연 :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군.
어휘의 측면	㉡	나연 : 국어가 변화하면서 어떤 어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군.
문법과 문법 요소 측면	㉢	다연 : ‘가’가 쓰일 자리에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구나.

- |        |      |                  |
|--------|------|------------------|
| ㉠      | ㉡    | ㉢                |
| ① 서르   | 어엿브다 | :물·홍 ·노·미 하·니·라  |
| ② 니르고져 | 어리다  | 홍 ·배 아·셔·도       |
| ③ 날로   | 전초   | 나·랏 :말·쌈·미       |
| ④ 너겨   | 놈    | ·스·물·여·들 字·宗·를   |
| ⑤ 사름마다 | 나라   |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宗御製訓民正音

나라:말쌈미 中東國에 달아 文文字宗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홍 ·배 아·셔·도 무·츰·내·제 ·뜰·들 사·러 파·디 :물·홍 ㉡·노·미 하·  
니·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宗·를 망·고·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  
메 便·便·安·한·키 하·고·져 홍 쓰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충청남도(단신)**

9. 윗글의 ㉠~㉢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 없는 것은?

<보기>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 성장,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의미 확대),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며(의미 축소),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의미 이동).

① ㉠ : 말쑤                      ② ㉡ : 어리다                      ③ ㉢ : 놈  
 ④ ㉣ : 어엿보다                      ⑤ ㉤ : 사름

**충청남도(단신)**

10. 윗글을 읽고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② 현대 국어에서는 소실된 음운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체언과 조사를 적을 때 그 체언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 ④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 ⑤ 비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가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랏:말쑤:미 中東國:귀: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스:못:디:아:니:힐:씨:이:런:전:초: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져 ㉡홀:배:이:셔:도:무:춤:내:제 ㉢어:엿:시:러:퍼:디:물:홍:노:미:하:니:라:내:이:물:爲:왕:하:야 :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중:를:밍: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나:겨 :날:로: ㉣부:매 便:便:安 한:키:하:고:저:훈:쓰:르:미:니:라.

(나) 乃:냉:終:중:기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부:느:니:라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쓰:면 입:시:울:가:비:야:본:소:리 두:외:느:니:라.  
 첫:소리를 어:울:워 뚫:디:면 골:박:쓰:라 냉:終:중:기 소:리도 훈: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다) 불:휘 기:폰 ㉥남:근 부:르:매 아:니 뵈:씨  
 꽃: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폰 ㉦ ㉦: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루:래 가:느:니  
 - 「용비어천가」, <제2장>

**충청남도(단신)**

11. (가), (나)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음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 ② 지금은 쓰이지 않는 자음 ‘△’과 ‘▽’가 존재하였다.
- ③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을 방점의 개수로 구분하였다.
- ④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⑤ 종성에 음가가 없는 ㅇ이 있었다.

**충청남도(단신)**

12. <보기>와 어휘의 변화의 양상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전·초’는 원래 까닭이나 이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단어이다.  
 ㄴ. ‘사랑하다’는 원래 ‘생각하다’와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ㄷ. ‘식식하다’는 원래 ‘엄하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용감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 |       |     |      |
|-------|-----|------|
| ㄱ     | ㄴ   | ㄷ    |
| ① 말쑤  | 불휘  | 어리다  |
| ② 불휘  | 어리다 | 놈    |
| ③ 하다  | 놈   | 어엿보다 |
| ④ 스몫다 | 하다  | 어엿보다 |
| ⑤ 스몫다 | 말쑤  | 어엿보다 |

**충청남도(단신)**

13.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 ②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 ③ ㉢ :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 ④ ㉣ :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가 쓰였다.
- ⑤ ㉤ :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체언이 쓰였다.

**한국어 보충문제 (729)**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에서 어휘는 시대에 따라 형태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음운의 변천에 따른 어형 변화로 ‘·’와 같은 음운의 소멸이나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단모음화, 원순모음화 등의 음운 현상으로 인해 어형이 바뀌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형태소 자체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 |        |      |
|--------|------|
| 중세국어   | 현대국어 |
| ① 스믈   | 스물   |
| ② 니서쓰면 | 이어쓰면 |
| ③ 기픈   | 깊은   |
| ④ 부릅   | 바람   |
| ⑤ 도쿄   | 종교   |

**한국어 보충문제 (730)**

15. 방점을 고려하지 않을 때, <보기>의 설명에 따라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세국어 시기는 모음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져 목적격조사는 ‘을/를/을/를’, 단독의 보조사에 ‘은/는/은/는’이 있었다. 예를 들어

㉠ : ‘뜯’ +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

㉡ : ‘물’ + ‘단독의 보조사’가 결합한 상태에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 ① 뜯들 | 므른 |
| ② 뜯를 | 물논 |
| ③ 뜯들 | 물은 |
| ④ 뜯를 | 물논 |
| ⑤ 뜯들 | 므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世宗宗宗御製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중·동·국·에·달·아·문·문·字·중·와·로·서·르·스·뭇·디·아·니  
 흘·싸·이·런·전·초·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모·춤·  
 내·제·쁘·들·사·리·퍼·디·문·홍·㉠·노·미·하·나·라·내·아·를·爲·왕·하·야·어·엿·  
 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중·를·망·ᄒ·노·니·사·름·마·다·하·예·수·비·  
 니·겨·날·로·부·매·便·便·安·안·키·하·고·저·홍·싸·르·미·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 ㉠ ) ( )

**한국어 보충문제 (731)**

16. 위에 제시된 ‘훈민정음’을 읽고, ‘문법과 문법적 요소’에 관한 중세국어의 특징을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단, 예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200자 내외로 서술할 것.)

**한국어 보충문제 (732)**

17. 현대의 ‘한글 맞춤법’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중세국어의 표기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을 서술하시오. (세 가지 단어를 보고, 표기의 공통점을 서술하여야 함. 50자 내외로 빈 칸에 쓸 것.)

중세 국어		현대 국어	표기 방식상 국어의 변화
·노·미	→	놈이	
·뿌·매	→	쓰매	
ㅅᄒ·미·니·라	→	따름이니라	

**한국어 보충문제 (733)**

18. 아래의 밑줄 친 조사 중에서 (가)의 밑줄 친 ‘배’에 쓰인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사가 쓰인 것은?

- ① 이번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 ② 긴 겨울이 지나자 강물이 녹아 얼음이 되었다.
- ③ 피서지에서 예약한 방이 깨끗하지가 않았다.
- ④ 그가 우리를 도와줄 적임자가 아닐까?
- ⑤ 지금의 야자가 미래의 성공의 될 것이다.

**충인고등학교 (72년)**

19. 아래의 글은 ‘국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글이다. ‘국어의 역사성’을 ‘어휘적 측면’에서 서술하되, ‘훈민정음’에서 예를 찾아 서술하시오. (100자 내외로 서술하되, 꼭 예를 ‘훈민정음’에서 찾을 것.)

<참고>

소리와 뜻 사이에 일정한 약속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약속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약속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충인고등학교 (72년)**

20.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가)의 ‘㉠노·미’와 표기의 측면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말·쓰·미      ② ·쁘·들      ③ 어·옛·비
- ④ 나·겨      ⑤ ·쯔·름·미·나·라

**충인고등학교 (72년)**

21. ㉠에 들어갈 현대어 풀이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世宗宗中御製製訓民正音

㉠나랏·말·쓰·미·중·국·에·달·아·문·자·중·와·로·서·르·스·못·디·아·  
 니·홀·씨 ㉡이·런·전·초·로·어·린·百·백·성·이·니·르·고·저·홀·배·이·셔·도·  
 무·춤·내·제·쁘·들·시·러·파·디·몬·흙·노·미·하·나·라 ㉢내·아·를·爲·왕·하·  
 야·어·옛·비·너·겨 ㉣새·로·스·물·여·들·字·중·를·망·?·노·니 ㉤사·름·마·  
 다·하·여·수·뵈·나·겨·날·로·쯔·름·메·便·便·安·한·키·하·고·저·홀·쯔·름·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나)



(다)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충인고등학교 (72년)**

22. (가)에서 중세국어의 음운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쓰·미 → :말·쓰·미
- ② ·쁘·들 → ·쁘·들·을
- ③ ·노·미 → ·놈·미
- ④ ·배 → ·바·ㅣ
- ⑤ ·쯔·름 → ·쯔·름·에

**1-0 통째로 기나긴 밥**

1.㉒ 2.㉑ 3.㉓ 4.㉑ 5.서리서리 6.㉑베어 내어 ㉑이불 아래 ㉑사랑하는 사람 7.㉑ 8.㉑ 9.㉓ 10.㉑ 11.㉑ 12. ㉑ 13.㉑ 14.㉓ 15.㉑ 16.㉑ 17.㉑ 18.㉑㉒ 19.㉑ 20. ㉑ 21.㉑ 22.㉑ 23.㉓ 24.㉑ 25.㉓ 26.㉓ 27.㉓ 28.㉒ 29.㉑ 30.㉒ 31.㉒㉑ 32.㉑ 33.㉑ 34.㉒ 35'핵심 시어' 를 살리면서 '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바꾸고자 함.

**1-21 11**

1.㉑ 2.㉓ 3.㉑ 4.㉑해학성, ㉑향토성 5.㉓ 6.㉑ 7.㉓ 8. ㉑ 9.㉑ 10.㉒ 11.㉒ 12.㉒ 13.㉒ 14.㉒ 15.㉑ 16.㉑ 17.㉓ 18.㉒ 19.㉒ 20.㉑ 21.㉑ 22.㉒ 23.㉑ 24.(1)㉑- ㉑-㉑-㉑-㉑-㉑-㉑-㉑-㉑ (2)'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런 싸움을 극대화시켜 작품의 긴장감을 살리고 해학성을 부각한다. 독자가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㉑ 26.㉒ 27.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수준이 떨어진다. 28.㉒ 29.㉓ 30. ㉒ 31.㉑ 32.㉑ 33.㉑ 34.㉑ 35.㉒ 36.㉑ 37.㉑ 38.㉑ 39.㉓ 40.㉑ 41.㉑ 42.㉑ 43.(1)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이고, <보기>는 순행적 구성이다. / 윗글은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고, <보기>는 사건의 배경과 결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다. (2)바다 44.㉒ 45.㉑ 46.㉒ 47.㉑

**1-9 이우진**

1.㉓ 2.㉑ 3.㉑ 4.㉑ 5.㉑ 6.㉓ 7.㉒ 8.㉑ 9.㉓ 10.㉒ 11.(1)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12. ㉒ 13.㉑ 14.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5. ㉑ 16.㉓ 17.㉑ 18.㉑ 19.㉑ 20.㉑ 21.㉓ 22.㉑ 23.㉒ 24.㉑ 25.㉑ 26.㉑ 27.㉑ 28.㉒ 29.㉓ 30.㉒ 31.㉑ 32.

㉑ 33.㉑ 34.㉒ 35.㉑㉒ 36.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37.㉑ 38.㉒ 39.㉓

**1-4 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1.㉑ 2.㉑ 3.㉒ 4.㉑ 5.㉑ 몽타주 기법 ㉑ 대사 없이 행동만 연속적으로 나열해서 보여준다. 6.㉒ 7.㉓ 8. ㉑ 9.㉑ 10.㉒ 11.㉑ 12.㉓ 13.㉑ 14.㉒ 15.㉓ 16.㉑ 17.㉑ 18.㉑ 19.㉓ 20.㉓ 21.㉓ 22.㉒ 23.㉓ 24.㉑ 25. ㉑ 26.㉒㉑ 27.S#165. 전원주택, 몽타주 / 저녁-아침- 낮-밤 28.㉑ 29.㉑ 30.㉓ 31.㉒ 32.㉑ 33.㉑ 34.㉒ 35. ㉑ 36.(1)연극 (2)대사 (3)극 37.㉓ 38.㉒ 39.㉓ 40.㉑ 41.과거 오진을 했던 일 때문에 '실력 없는 의사'라는 자괴감을 느끼며, 의사이면서도 자기 아내의 병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미안함을 드러낸다. 42.㉓ 43.㉒ 44.㉓ 45.㉑ 46.㉑몽타주, 앞으로 누리지 다시 누리지 못할 일상적인 행복과 아픈 인회의 모습을 교차시켜 제시함으로써 예고된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2-0 한국의 정치성**

1.㉓ 2.㉓ 3.㉒ 4.㉒ 5.㉒ 6.㉓ 7.㉓ 8.㉑ 9.㉑ 10.㉑ 11.㉑ 12.㉒ 13.㉑ 14.㉓ 15.㉑ 16.㉑ 17.㉑ 18.㉑ 19. ㉑ 20.사람들이 '개성'이 아니라 '시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1.㉓ 22.㉒ 23.㉒ 24.고유성은 시원이 아니라 개성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만의 개성과 독특함을 갖는다면 원조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5.㉑ 26.㉑ 27.㉑ 28.㉑ 29.프랑스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여 포도주를 프랑스의 상징으로 만든 것처럼, 탁 선생은 탁 선생만의 방식으로 족발을 개발하면 된다. 30.㉑ 31.㉓ 32.㉑ 33.㉑ 34.㉓

**2-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지배 확대에 관한 글**

1.㉓ 2.㉓ 3.㉑ 4.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5. ㉒ 6.㉑ 7.㉑ 8.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9.㉑ 10.㉑ 11.㉒ 12.㉓ 13.㉑ 14.㉒ 15.㉒ 16.㉑ 17.㉓ 18.㉑ 19.㉑ 20.㉑ 21.㉑ 22.㉑ 23.㉓ 24. ㉒ 25.㉑ 26.㉑ 27.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피곤하기 때문에 수업에 열중하기 어렵고 이것이 성적 저하로 이어진다. ㉑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게

되면 편하게 용돈을 받아 쓸 때는 모르던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28.④ 29.② 30.③ 31.③ 32.④ 33.⑤ 34.⑤ 35.③ 36.④ 37.⑤ 38.⑤ 39.⑤ 40.②

**3. 나 기대되는 문외**

1.③ 2.② 3.⑤ 4.⑤ 5.⑤ 6.① 7.⑤ 8.④ 9.④ 10.① 11.⑤ 12.③ 13.⑤ 14.① 15.② 16.㉠아주 오랜 세월 ㉡아주 먼 데 17.⑤ 18.② 19.③ 20.①

**4.0 음운 변형**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포],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캄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 ② 14.③ 15.③ 16.④ 17.㉡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ㅁ'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 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4.0 발음 및 음운**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 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 싹둑싹둑, 회전롤→ 회전롤, 촛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 백분율, 댓가→ 대가, 뽀어야→ 뽀야(뽀어야) 13.② 14. 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깎았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율→선율, 몹시→몹시, 얇은 체→얇은 체,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러→몽뚱그러:㉠, 씹술한→씹쓸한:㉡ 47.④ 48. 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를√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ㄷ. 뵈요→ 뵈요 ㄹ: 순대국→ 순댓국 65.②

**4.0 국어의 역사성**

1.⑤ 2.④ 3.① 4.⑤ 5.㉠ ㄱ, ㄴ, ㄹ, ㅁ, ㅇ ㉡ ., -, |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爲왕후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興國語'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흄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초, 스뚱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③ 25.③ 26.② 27.㉠, ㉡, ㉢, ㉣, ㉤, ㉥ 28.③ 29.④ 30. 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ㅕ'